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 A책형
(일반행정, 토목, 건축)

2018. 03. 2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 ① 손난로 ② 불놀이
③ 찰나 ④ 강릉

01 ① 현대문법-음운의 변동(자음동화의 방향)

①의 '손난로[손날로]'는 앞 자음이 바뀌는 역행동화이다.

[오답 풀이]

②의 '불놀이[불로리]', ③의 '찰나[찰라]', ④의 '강릉[강능]' 등은 뒤 초성 자음이 바뀌는 순행동화이다.

2.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② 담임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
③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④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02 ① 현대문법-높임법(주체의 간접높임표현)

제시 예문들은 모두 간접높임표현이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주체의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활의 필수적 조건이나 밀접한 관련이 되는 사물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①의 '따님'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어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존대의 대상이 되는 '부장님'의 소유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므로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를 써야 한다.

→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있으신가요?

[오답 풀이]

일반적으로 ②의 '키', ③의 '지팡이', ④의 '우산'은 존대해야 할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키, 지팡이, 우산'을 소유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은 모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높여야 할 대상이다. 일반적으로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나 ②, ③, ④에서처럼 높여야 할 대상의 소유물로 해석되면서 문장에서 주어의 구실을 할 경우는 높임말이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를 쓴다. 또한 서술어에 '-(으)시-'를 붙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3. <보기>의 내용 중 밑줄 친 '쓰다'의 쓰임이 다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보기>

- ㄱ.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ㄷ. 공원묘지에 묘를 쓰다.
ㄹ.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ㅁ. 입맛이 써서 맛있는 게 없다.
ㅂ.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

- ① ㄱ - ㄷ ② ㄴ - ㅁ
③ ㄷ - ㄹ ④ ㄹ - ㅂ

03 ④ 비문학-어휘의 의미관계

ㄹ과 ㅂ의 '쓰다'는 다의어, 다른 단어들은 모두 동음이의어관계이다.

ㄱ의 '쓰다'는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는 뜻의 동사.
ㄴ의 '쓰다'는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의 동사.
ㄷ의 '쓰다'는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다'는 뜻의 동사.
ㄹ의 '쓰다'는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는 뜻의 동사.
ㅁ의 '쓰다'는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는 뜻의 형용사.
ㅂ의 '쓰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는 뜻의 동사.

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 ① 구체적 시공간을 제시하여 역사적 배경을 환기한다.
②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던 숨 막히던 상황이다.
③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
④ 수심은 물의 깊이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을 뜻한다.

04 ③ 현대시-종합적 감상

이 시는 6·25 이전의 남북 분단 경계선을 넘으려던 사람들의 비극적 사건을 다룬다. 월남할 때 삼엄한 감시와 경계를 피해 몰래 배를 타고 남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터진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의 목숨을 빼앗은 비극적인 상황이다. 직접적인 살해자인 '아기의 부모'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것은 분단의 현실이다.

[오답 풀이]

- ① '용당포'라는 지명과 '1947년 봄'이라는 시간을 통해 더욱 구체화됨으로써 사실감, 생동감, 현장감을 더해 준다.
② '이남(以南)과 이북(以北)의 경계선(境界線) 용당포'는 38선이 그어진 곳, 월남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감시와 경계가 삼엄했다.
④ '수심(水深)'은 분단으로 인한 비극의 깊이를 말하며, '수심을 모른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도 역사적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출전: 김종삼, 『민간인(民間人)』

1) 성격 : 객관적, 관찰적, 비극적, 상징적, 주지시

2) 특징 :

- ① 과거시제의 사용 →시의 구체성과 설화적 요소 부여
② 주관성이 배제된 스케치풍의 묘사 중심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 A책형
(일반행정, 토목, 건축)

2018. 03. 2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③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조
④ 간결한 표현을 통해 민족 분단의 비극성을 극명하게 나타냄.
⑤ 의도적인 행각이를 통해 시공간 배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⑥ 2연의 각 행마다 마침표를 사용하여, 당시 상황을 최대한 담담하게 드러냄으로서 비극성을 강화함
3) 주제 : 민족 분단의 아픔과 비극성
민족 분단의 비극성, 분단으로 인한 비극

5. <보기>의 관점에서 ‘소비’를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은?

<보기>

오늘날의 상황을 ‘소비의 위기’라 부른다.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만큼 소비에 대한 인식이 위태롭다.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수입이 장기적으로 불안해지는 추세와 함께 이른바 마비 현상이라 부르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불안과 욕구라는 양극단 중 어느 한쪽도 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심적인 경련과 리듬 상실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모든 정상적인 소비 현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는 만성 자제력 상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향후 몇 년 안에 달라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 다비트 보스하르트, 『소비의 미래』

- ① 철수 -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디딤돌이야.
② 영희 - 오늘날은 소비의 위기 시대이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어.
③ 영수 -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④ 순희 -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군.

05 ④ 비문학-내용의 이해와 감상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며,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든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 글은 오히려 소비를 장려하는 글이다.

[오답 풀이]

- ① 세 번째 문장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는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② 제시 글의 처음부분에서 오늘날의 상황을 ‘소비의 위기’라 부르고,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6. ‘살짝곰보’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같은 것은?

- ① 덮밥 ② 얼룩소
③ 딱딱새 ④ 섞어찌개

06 ③ 현대문법-단어의 형성

‘살짝곰보’는 ‘부사(살짝)+곰보(명사)’의 구성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의 ‘딱딱새’도 ‘부사(딱딱)+새(명사)’의 구성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덮(용언의 어간)+밥(명사) →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

② 얼룩(명사)+소(명사) → 통사적 합성어

참고로,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기준)에서는 ‘얼룩소’를 ‘명사(얼룩)+명사(소)’의 구조로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그런데 학교문법에서는 ‘얼룩얼룩’이라는 부사에서 온 것으로 ‘부사(얼룩)+소(명사)’의 구성으로 비통사적 합성어로도 본다.

④ 섞어찌개

[국립국어원] ‘섞어찌개’는 용언의 부사형(불규칙 어근) ‘섞어’와 명사 ‘찌개’가 결합한 형태로 보아,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학교 문법] 동사의 활용형+명사의 결합으로 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섞(동사)+어(연결어미)+찌개(명사)

7. <보기> 중 음운변동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발전 ㄴ. 국화 ㄷ. 솔잎 ㄹ. 독립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07 ③ 현대문법-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수

ㄴ의 ‘국화[구화]’는 표기상 5개의 음운이 자음 축약으로 음운의 수는 4개가 된다.

ㄷ의 ‘솔잎[솔립]’은 표기상 5개의 음운이 음운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 음운의 수는 6개가 된다.

[오답 풀이]

ㄱ. 발전[발뽀]: 표기상 6개의 음운, 된소리되기의 음운 변화 후에도 음운의 수는 6개이다.

ㄹ. 독립[동립]: 표기상 6개의 음운, 자음동화의 음운 변화 후에도 음운의 수는 6개이다.

8.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리: Sin-li ② 일직면: Iljik-myeon
③ 사직로: Sajik-ro ④ 진량읍: Jillyang-eup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 A책형
(일반행정, 토목, 건축)

2018. 03. 2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어천가나>, <훈민정음언해>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의 일부에서는 ‘ㅅ’ 이외에도 ‘ㄱ, ㄷ, ㅂ, ㅈ, ㅊ’ 등의 글자가 사잇소리 표기 글자로 쓰였다. 성종 때부터 ‘ㅅ’으로 통일되었다.

예) 하늬 뽕, 눈시울, 사릅 뽕

[상세 해설]

ㄱ은 해례(解例)의 ‘종성해(終聲解)’에 있는 팔종성가족용(八終聲可足用) 규정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전까지의 종성 표기 방법이었다.

ㄴ. 사잇소리는 관형격 조사 ‘~의’의 구실을 한다. 순수 국어 아래에 ‘ㅅ, ㅈ, ㅊ, ㅊ’이 쓰였다. 성종 때부터 ‘ㅅ’으로 통일되었다.

예) 하늬 뽕, 눈시울, 사릅 뽕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 존재하는 사잇소리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매우 복잡하다.

	선행음	사잇소리	후행음	보 기	
한자어 아래	ㅇ	ㄱ	안울림	乃娘終ㄱ소리, 兄형ㄱ 뽕	
	ㄴ	ㄷ	안울림	君군ㄷ字宗	
	ㄹ	ㅂ	안울림	侵침ㅂ字宗	
	ㄴ	ㅈ	안울림	斗돌 ㅈ字宗	
	ㅇ	ㅊ	안울림	快쾌ㅊ 字宗	모음 뒤
고유어 아래	울림소리	ㅅ	울림소리	世ㅅㅅ位, 天子ㅅㅅ음(마음)	
	울림소리	ㄷ	〃	눈조스(눈동자) 눈시울(눈꺼풀)	한자법 사잇소리 용법에 유추된 예외
	ㄹ	ㅈ	ㅈ	하늬뽕(하늘뽕)	
	울림소리	ㅅ	울림소리	눈을, 바룻우희	
	ㄹ	ㅂ	안울림	사릅서리(사람사이)	

ㄷ. 당시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고쳐 한자음의 혼란을 줄이려고 한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한자음 표기법이다. 성종 때까지 쓰이고, 1485년 이후 소멸되었다.

ㄹ. 종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규정이다.

ㄹ. 순음(ㅂ, ㅈ, ㅊ, ㅊ) 아래에 ㅇ을 이어서 순경음(脣輕音)을 만드는 연서(連書) 규정이다.

12. <보기>의 ㉠과 ㉡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임이여,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이제 님을 어이 할까나

㉡

生死 길흔/이에 이샤매 머뭇거리고/나눈 가늌다 말스도/묻다 니
르고 가늌닛고/어느 그술 이른 북새매/이에 더애 뿌러질 님군/흐
든 가지라 나고/가논 곧 모드론저/아야 彌陁刹아 맛보올 나/道
닷가 기드리고다.

- 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 ② 임과의 사별을 노래했다.
- ③ 승화, 초월 양상이 보인다.
- ④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12 ① 고전문학- 두 작품의 공통점

(가)는 백수(白首) 광부(狂夫)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다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1행은 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는 애원→2행은 물을 건너는 임→3행은 임의 죽음→4행은 임의 죽음을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이다.

(나)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부른 ‘제망매가(祭亡妹歌)’이다.

첫째 부분(1~4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여 자연의 냉혹한 섭리에 대한 두려움과 누이에 대한 추모의 정을 노래했고, 둘째 부분(5~8구)에서는 누이와의 속세에서의 인연을 생각하는 과거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셋째 부분(9~10구)인 낙구(落句)에서는 극락에서의 만남이라는 미래를 설정하여, 누이를 극락 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즉 ‘현재-과거-미래’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② 임과의 사별은 (가)에만 해당한다.
- ③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슬픔의 종교적 승화는 (나)에만 나타난다.
- ④ 두 작품 모두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13.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우리가 그 본성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을 불변의 것으로 고정화할 때, 우리는 옛날의 중국 여자의 전족처럼 살아 있는 것의 성장을 왜곡화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고사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 ① 課程 - 纏足 - 矮曲 - 苦死
- ② 過程 - 纏足 - 歪曲 - 枯死
- ③ 過程 - 填足 - 矮曲 - 枯死
- ④ 課程 - 填足 - 歪曲 - 苦死

13 ② 한문-한자어

- 과정(過程: 過 지날 과/程 한도(길) 정) 일이 되어 가는 경로.
- 전족(纏足: 纏 엮을 전/足 발 족) 중국의 옛 풍습의 하나. 여자의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들을 어릴 때부터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 넣듯 힘껏 묶어 형겅으로 동여매어 자라지 못하게 한 일이나 그런 발을 이른다.
- 왜곡(歪曲: 歪 기울 왜/曲 굽을 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외국(x)
- 고사(枯死: 枯 마를(쇠하다, 야위다) 고/死 죽을 사)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음. ‘말라 죽음’으로 순화.

[오답 풀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 A책형
(일반행정, 토목, 건축)

2018. 03. 2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①

- 과정(課程: 課 공부할 과/程 한도 정) ㉠해야 할 일의 정도. ㉡일정한 기간에 교육하거나 학습하여야 할 과목의 내용과 분량
- 왜곡(矮曲: 矮 난쟁이 왜/曲 굽을 곡) 아주 볼품없이 작달막하고 굽다.
- 고사(苦死: 苦 쓸 고/死 죽을 사) (×)

③

- 전족(填足: 填 메울 전/足 발(충족하다, 채우다, 만족하게 여기다) 족) 모자라는 것을 채움.

14. 고유어에 대한 풀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갈바람: 가을바람의 준말
-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 열 마리를 짚으로 엮은 것
-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14 ② 국어생활-우리말 어휘

②의 '두름'은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세는 단위이다. 즉 20마리이다. 또한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다.

[오답 풀이]

① 갈바람: ㉠'가을바람(가을에 부는 선선하고 서늘한 바람)'의 준말. ㉡ 뱃사람들의 말로, '서풍'을 이르는 말. [비슷한 말] 가수알바람.

③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바리'는 사람을 낮잡아 가리킬 때 쓰인다. 군인을 낮잡아 '군바리'라고 한다. '트레'는 동사 '틀다'의 '틀'에 조사 '에'가 붙은 형태다.

참고로, '혼인에 트레바리'라는 속담은 혼인을 반대하는 트레바리를 부린다는 뜻으로, 좋은 일까지도 덮어놓고 반대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이다.

④ 지청구: ㉠꾸지람(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지천(×)

참고로, '지청구(를) 대다'라는 관용적 표현은 '못마땅하게 여기며 남을 탓하거나 책망하다', 또한 '짓궂게 조르며 못살게 굴다'의 뜻이다.

15.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 중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으)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 '-더라도'는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 '-거든'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 '-(으)ㄴ들'은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수사의문문이어야 한다.

15 ③ 현대문법-연결어미

'-거든'은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서, 후행절에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서울에 도착하거든 꼭 전화해라. --명령문(○)

또한 앞 절의 사실과 뒤 절의 사실을 비교하여, 앞 절의 사실이 이러하

니 뒤 절의 사실은 더욱 당연히 어떠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일 때, 흔히 뒤에는 수사의문문 형식이 온다.

예) 짐승도 은혜를 갚거든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르겠느냐?

단, '-거든'은 의문형어미와 결합하지 못한다.

참고로, '-거든'이 청자가 모르고 있을 내용을 가르쳐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경우 자랑이나 감탄의 느낌을 띠 때가 있다.

예) 이 사진 좀 봐. 아무리 보아도 이상하거든.

또한 '-거든/-거늘'은 앞의 사실과 뒤의 사실을 견주어 앞의 사실이 이러하니 뒤의 사실은 더욱 당연히 어떠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서, 주로 '하물며'와 결합하여, 반어형 수사의문문 형식이다. 즉 후행절이 평서문이 올 수 없다.

예) 짐승도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다 -(×)

예) 짐승도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은 더욱 은혜를 알아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으)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예) (하연이는) 일찍 떠나려고 (하연이는)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

참고로, '떠나다'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울다'처럼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에는 '-려고', '웃다'처럼 'ㄹ' 이외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는 '-으려고'가 붙는다.

② '-더라도'뿐만 아니라 '-듯이, -을망정'은 '-었-'과는 결합이 가능하나 시제선어말어미 '-겠-'과는 결합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

무슨 일이 있겠더라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

또한 '-더라도'가 사용된 문장에서 과거 시제 서술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 그 사람은 슬프더라도 울지 않았다 -(×)

④ '-(으)ㄴ들'은 어떤 조건을 양보해 인정한다고 해도 그 결과로서 기대되는 내용은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다. 반어형 수사의문문에 자주 사용된다.

예) 곁이 검은들 속까지 검은랴/검겠는가/검을쏘나

그러나 후행절이 기대되는 내용의 부정을 표현한다 해서 꼭 부정문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한 평서문도 사용할 수 있다.

예) 네가 나서 본들 별 수 없다.

출전권을 따 낸다 한들 대회에 나가면 망신만 당할 게 뻔하다.

16. <보기>의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방의 넓이는 10홀, 남으로 외딴문 두 개 열렸다. 한낮의 해 찌어, 밝고도 따사로워라.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온갖 책 갖추었다. 쇠코잠방이로 넉넉하니, 탁문군(卓文君)의 짝일세. 차 반사발 따르고, 향 한 대 피운다. 한가롭게 숨어 살며, 천지와 고금을 살핀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이라 말하면서, 누추하여 거처할 수 없다 하네. 내가 보기엔, 신선이 사는 곳이라, 마음 안온하고 몸 편안하니, 누추하다 뉘 말하는가.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건, 몸과 명예 모두 썩는 것, 집이야 썩대로 엮은 거지만, 도연명도 좁은 방에서 살았지. 군자가 산다면, 누추한 게 무슨 대수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 A책형
(일반행정, 토목, 건축)

2018. 03. 2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安分知足 ② 艱難辛苦
③ 貧而無怨 ④ 簞食瓢飲

16 ② 고전문학-글쓴이의 삶의 태도(한자성어)

제시 글은 허균의 '누실명(陋室銘)'으로서, '누실(陋室)'은 '누추한 집'을 뜻하고, '명(銘)'은 새겨놓고 보는 글, 흔히 우리가 '좌우명(左右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이라 말하면서, 누추하여 거처할 수 없다 하지만 글쓴이가 보기엔, 신선이 사는 곳이고, 마음이 안온하고 몸이 편안한 곳이다. 따라서 ②의 간난신고(艱難辛苦)'는 '몹시 고되고 어렵고 맵고 쓰다'는 뜻으로, 몹시 힘든 고생을 뜻하므로, 글쓴이의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여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함을 뜻하는 ①의 '안분지족(安分知足)'과 ③의 '빈이무원(貧而無怨)', ④의 단사표음(簞食瓢飲) 등은 글쓴이의 삶의 태도로 적절하다.

- ① 안분지족(安分知足 : 安 편안 안/分 나눌 분/知 알 지/足 발 족) 자기 분수에 만족하여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함. [유] 안빈낙도(安貧樂道)
② 간난신고(艱難辛苦 : 艱 어려울 간/難 어려울 난/辛 매울 신/苦 쓸 고) '몹시 고되고 어렵고 맵고 쓰다'는 뜻으로, 몹시 힘든 고생을 이르는 말.
③ 빈이무원(貧而無怨: 貧 가난할 빈/而 말 이을 이/無 없을 무/怨 원망할 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음.
④ 단사표음(簞食瓢飲 : 簞 소쿠리 단/먹이 사/瓢 바가지 표/飲 마실 음) '대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뜻으로, 좋지 못한 적은 음식. [동] 단표누향(簞瓢陋巷)

17. <보기>를 읽고 조선후기 방각본 소설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방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긴 뒤 그것을 종지로 찍어낸 소설책을 말한다. 주로 민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 방각본 소설은 종지와 나무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고, 인구가 많아 독자의 수요가 많은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주로 간행되었다. 그 중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경판본,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완판본이라고 부른다.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

- ① 한 작품 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② 방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을 것이다.
③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④ 분량이 긴 작품은 품과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17 ② 비문학-내용 추론

제시 글의 마지막 문장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라는 것은 서울에서 제작된 경판을 안성에서 찍었다는 것이므로 제작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유통되었을 것이라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경판본, 완판본 등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③ 주로 민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④ 방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긴 뒤 종지로 찍어낸 소설책이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18.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문장은?

- ① 밥을 먹은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이번 휴가에 발리 섬으로 여행을 간다.
④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18 ④ 국어생활-띄어쓰기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그리고 본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본용언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따라서 '오(어간)+= (관형사형 어미) √' (의존명사)+도(보조사) √ 하다'의 띄어쓰기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먹은지→ 먹은 √ 지, 두 시간밖에(○)
• 시간의 경과(지금까지의 동안)를 의미하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때는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② 관계 √ 없이 → 관계없이
• '관계없이'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문제 될 것이 없이'를 의미하는 부사로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관형사형 어미 뒤에 '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쓴다.
③ 발리 √ 섬 → 발리섬
• 우리말이나 한자어, 외래어 뒤에 해(海), 섬, 강(江), 산(山), 산맥 등은 앞말에 붙여 쓴다.

19. 밑줄 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②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③ 새 옷을 입어 보았다.
④ 그는 나를 놀려 대곤 했다.

19 ① 현대문법-본용언과 보조용언

①의 문장은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다+어머니가 가셨다'의 겹문장으로서 이때의 '가셨다'는 독립적으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용언이다.

2018. 03. 2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 ② 본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못하다’는 보조동사이다.
- ③ 본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다’는 보조동사이다.
- ④ 본동사 뒤에서 ‘-어 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대다’는 보조동사이다.

20. <보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필로티(pilotis)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빼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세월호 평형수가 저럼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럼 주택, 나아가 저럼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도로·녹지를 모두 개별 대지 안에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 풀기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답안이었다.

-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 ② 인과관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 ④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20 ④ 비문학-글의 설명 방식

‘유추(類推)’란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전개방식이다. 글쓴이는 필로티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 세월호 평형수 관한 내용으로 유추하고 있다. 즉 ‘세월호 평형수가 저럼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럼 주택, 저럼 도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추의 방식으로 속성이 유사하다는 설명일 뿐,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소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하고,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빼죽 나오도록 하는 주차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 ② 원인(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과 결과(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원인(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과 결과(1층을 필로티로 하여)의 관계로 되어 있다.
- ③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라는 설명에서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